

파국이나 통합이나...野 운명의 주말

文, 지도체제 입장 표명...고사 후 제3 대안 제시 가능성 安, 혁신전대 수용 압박...중구난방 중재안에 위기 고조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년 총선을 지휘할 지도체제 해법을 좀처럼 찾지 못하면서 파국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문재인 대표의 '문안박(문재인·안철수·박원순) 공동지도부' 구상이 무산되고, 안철수 전 대표가 제시한 '혁신 전당대회' 개최도 주류 측의 반발로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정기국회 최대 현안인 내년도 예산안이 2일 처리되면서 내년 총선 공천권을 놓고 주류와 비주류의 전면전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열 수 없다는 주장은 국론이 분열되기에 선거를 앞서는 여지 주장과 같다"고 주장했다.

범주류의 전방위 최고위원은 "문-안-박 연대와 혁신 전대의 유일한 교집합은 혁신"이라며 "혁신의 가치를 한데 묶어내는 문 대표의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안 전 대표는 국회 상임위 및 본회의 참석 외에는 공개 일정을 잡지

않은 채 침묵으로 문 대표에 혁신 전대 수용을 압박했다.

안 전 대표 진영에서는 혁신 전대는 돌아선 민심을 복원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혁신 전대로 리더십을 창출해야 혁신안을 실현하고 신당 세력과의 통합도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안 전 대표 진영에서는 당내에서 문-안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통합 선대위나 비대위 구성의 중재안을 제안한다 해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혁신을 내걸고 사실상 계파 나눠먹기를 수용했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내에서는 혁신안 실천을 전제로 문-안 모두 배제하고 지역 및 계파가 배려되는 통합 선대위가 꾸려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결국 문 대표가 혁신안 실천을 전제로 대표직을 내려놓는 결단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문 대표가 혁신을 고리로 대표직 유지의 '마이 웨이'를 선언하거나 당내 세력을 기반으로 통합책을 내놓는데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치 않아 당내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해답은 어디에...”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왼쪽) 최고위원이 2일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허공을 바라보고 있다. 이날 주 최고위원은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대표가)분란에 빠진 당을 조속한 시일 내에 수습했으면 좋겠다”며 “가급적 이번주중에 결단 내리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일단, 문 대표는 안 전 대표의 혁신전대 개최 요구에 대해 이번 주말께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문 대표는 혁신 전대 제안을 고사하는 대신, 혁신을 고리로 안 전 대표와 접점을 모색하는 '제3의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당내에서 백가쟁명식의 중재안이 나오는 만큼 문 대표가 주도적으로 안을 내놓기보다 공론을 따르는 방식이 제시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통합 선대위 출범 등의 주장이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지도체제 문제의 핵심은 사실상 문 대표의 거취라는 점에서 쉬운 문제가 아니다. 특히, 지도체제 논란은 근본적으로 내년 총선 공천권을 행사할 지도부를 누구로 구성할 것인가라는 문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주류, 비주류 간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다는 관측이 높다.

이를 반영하듯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주류의 주승용 최고위원은 “내년 1월 임시 전대를 열어 비상지도부를 선출하고자 제안한다”며 “분열이 걱정돼 전대를

‘지지부진’ 선거구 획정 답 찾을까

오늘 정의화·김무성·문재인 회동

정의화 국회의장은 3일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를 만나 내년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 기준 등에 대해 논의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장은 3일 오전 10시30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여야 대표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이병서 위원장과 회동할 예정이라고 복수의 관계자들이 2일 전했다.

예산안 처리를 마무리하는 대로 법정 시한을 한참 넘긴 선거구 획정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선거구 획정기준을 마련할 정계특위의

의 활동시한은 이날 15일까지며, 내년 4·13 총선 출마 예상자의 예비후보등록도 이날 시작된다.

여야는 지난달 20일까지 정계특위에서 선거구 획정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견해를 좁이지 못해 공전을 거듭했다. 효율적 협상을 위해 소소위까지 구성, 몇 차례 만나 협상에 임했으나 이견만 확인하고 제자리걸음만 계속하고 있다. 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와 내년도 예산안 문제로 여야 간 선거구 획정안 논의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박지경기자 jkpark@

새정치, 총선전 당명 바꾼다

전국 대의원 여론조사 찬성 73%...다음달까지 완료

새정치민주연합이 당명개정 추진 방침을 사실상 확정했다.

새정치연합 창당 60주년 기념사업회 위원장인 전병헌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명개정과 관련해 전국 대의원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찬성의견이 73%로 압도적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새정치연합은 전국 대의원 여론조사를 통해 당명개정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기로 한 바 있다.

전 최고위원은 “당의 중추인 대의원들이 이 같은 응답은 주류와 비주류의 프레임을 내던지고 당이 환골탈태해야 한다는 열망”이라며 “당명개정 작업의 가시화를 통해 당원들의 진정한 열망에 귀 기울이며 신중하게 작업을 추진하겠

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새정치연합은 조만간 최고위에서 당명 개정 안건을 의결하고 공모 절차에 착수, 이르면 이달 내 또는 다음달 중 당명 개정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개정 당명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다시 쓰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당내에서는 ‘새정치민주당’을 새 당명으로 하자는 의견과 함께, 적어도 약칭은 ‘민주당’으로 쓸 수 있는 이름을 찾자는 의견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안철수 전 공동대표 등은 “이름을 바꾸는 것이 본질이 아니다”며 이에 부정적이다.

또 마포에 당사를 둔 원외정당이 ‘민주당’ 이름을 정식으로 등록한 점도 변수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황주홍·유성엽 의원 ‘현역 평가’ 당무감사 거부

새정치, 내홍속 평가 강행...비주류 강력 반발

새정치민주연합이 당내 갈등 속에서도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2일 새정치연합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까지 현역 국회의원들의 지역위원회에 대한 당무감사를 마무리하고 곧바로 원외 지역위원장이 있는 지역위원회에 대한 당무감사에 돌입했다. 또 오는 9일까지는 원내대표실을 통한 공약이행 평가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현역의원 하위 20% 물갈이를 주도할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현역의원 지역 실사를 끝내고 조만간 여론조사, 대면평가를 담당할 기관 선정에 나서는 등 가급적 이달 안으로 평가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문 대표 측은 나아가 이달 중 총선거획단을 발족하고 공천관리위원회, 인재영입위원회 출범을 서두를 방침이다. 최고위원회의는 지난달 30일 비례대표 추천 심

사방식을 결정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하지만, 이 같은 현역의원 평가 작업은 문재인 대표가 ‘김상근표 혁신안’을 밀어붙이는 상황으로 받아들여져 안철수 전 공동대표 등 비주류 측의 반발을 부르고 있다.

즉, 안 전 대표가 요구한 혁신전당대회 개최 등 당 내분을 해결하기 위한 각종 제안을 무시한 채 현역의원 평가 등 혁신안 실행을 위한 각종 프로세스를 일방적으로 가동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다.

그럼에도 문 대표 측은 문 대표 사퇴, 전당대회 개최 등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혁신안을 지켜낸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비주류의 문병호 의원은 한라디오에 나와 “(혁신전대에서 선출된) 새 지도부가 (혁신안을)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며 “‘김상근 혁신안’에 목매게 없다”고 비판했다.

또 전북에서 유성엽 도당위원장이, 전남에서는 황주홍 도당위원장이 각각 해당 지역 당무감사를 거부했다. 이와 관련 중앙당은 당헌당규 위반에 따른 징계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원외정당 민주당 광주서 전진대회

새로운시작위, 5일 DJ센터

원외정당인 민주당이 광주에서 아권 통합 의지를 다진다.

민주당 새로운 시작위원회는 오는 5일 오후 3시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아권 재창조와 총선승리를 위한 전진대회’를 연다고 2일 밝혔다.

시작위원회는 오는 15일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전국 당원 3000여명이 모여 대안야당 창출을 위한 통합추진·총선승리를 결의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박주선 의원, 박준영 전 전남지사가 현장에서 축하사

고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은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라고 시작위원회는 전했다.

정규환·박명서·김종배·유재규 전 의원, 전·현 자치단체장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저성장 시대 국민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저비용 사회’ 실현 ▲특권 타파 등 과감한 저비용 상생정책의 개혁을 담은 ‘스웨덴식 정치개혁’ ▲대한민국 경제와 호남 경제의 부흥을 위한 새로운 성장전략으로서 ‘새만금신경제수도 추진’ 등 총선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MG여성만세예금”이란?

알뜰한 당신에게 “MG여성만세예금”을 추천합니다.

만 18세 이상인 여성들에게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출금 통장!

(단, 수수료 면제 조건이 충족 되어야 면제 됩니다.)

“MG new 정기적금”

예금을 크게 키우는 똑똑한 금융 습관!

가입조건에 따라, 우대이율이 제공되는 정액적립식 예금!

▶ 1년 최대 2.6% 이율 적용

담보대출

APT, 주택, 상가, 대지 감평가 대비 70% 가능

보증서 담보 대출(햇살론) 최대 2,000만원 가능

임대보증금 대출 보증금 대비 최대 80% 가능

신용대출

최대 5,000만원 까지 (담보대출 보유시 우대금리 적용)

- ※ 당사가 정하고 있는 조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체크기 설치 및 유지 보수 관리(결제계좌 변경시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 ※ 건수에 따라 유지보수 수수료 지원 가능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용주점
062)525-2774~5
(용봉동 주민센터 앞)

삼각점
062)525-2776~7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앞)

빛고을새마을금고